토끼의 지혜·복덕으로 힘껏 뛰는 한 해 기원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토끼 그리고 부적' 展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판화·목판·자료 등 70여 점 공개
한중일 등 토끼 판화·부적 전시
3국의 토끼 관련 자료 비교 기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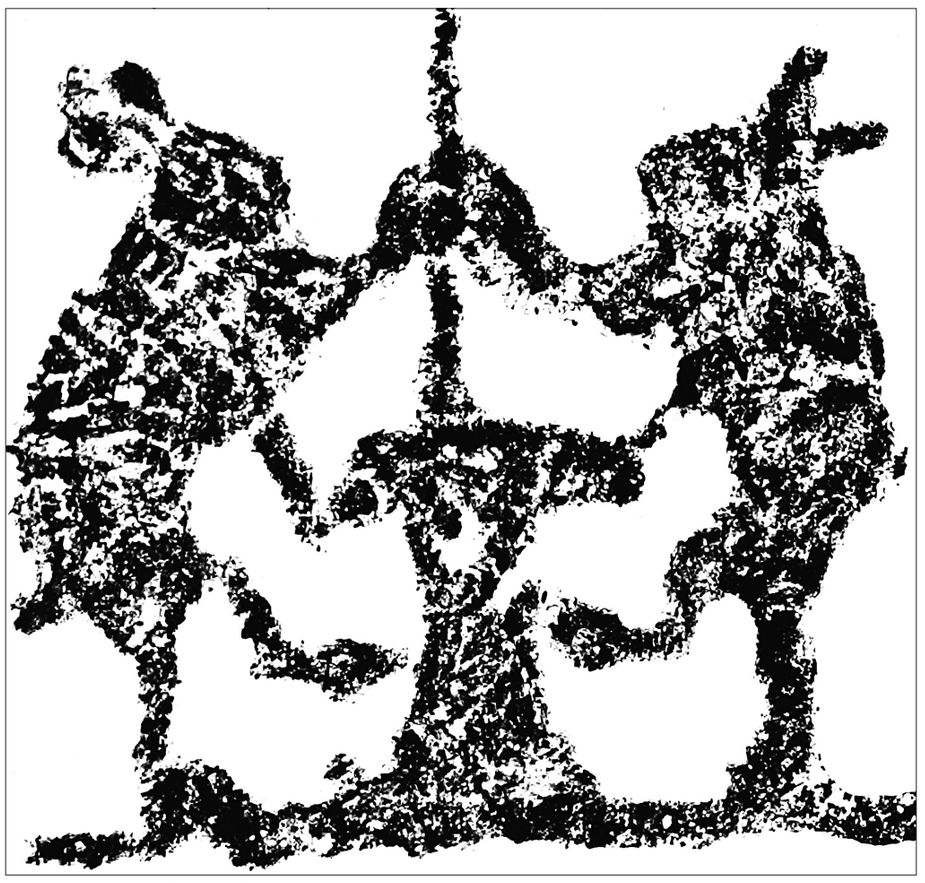
계묘년 설날을 앞두고 토끼 관련 판화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부적관련 판화 자료 등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관 20주년 기념 설맞이 특별전 '계묘년 소원성취 기원 : 토끼 그리고 부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중국·일본 등지에서 목판화로 제작된 토끼 관련 판화와 판목, 탁본, 우키요에를 비롯해 동 아시아인들이 새해를 맞아 사용했던 소원성취 액막이 부적 판화 등 70여 점을 선보인다.

지혜와 복덕의 상징인 토끼를 의인화한 판화는 집안의 대문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각종 재난을 극복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했다.

△한국 작품으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조도 채색판화인 '달과 토끼'를 비롯해 문자도 '치(恥)' 자에 표현된 토끼, 김유신장군과 진성여왕묘의 12지신에 등장한 토끼 탁본, 호랑이에게 담배대를 들어주는 토끼 목판화와 석판화 등이 소개된다. 부귀다남수복강령 세화에 등장하는 토끼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김유신장군묘12지신토끼 탁본


.중국– 화상전 탁본(토끼부분)

△중국판화로는 항아의 전설이 담겨있는 태음성군 목판화와 정초에 집안이나 대문에 붙여 소원성취를 빌었던 중국세화인 년화 중에서 불교와 도교의 모든 신들을 한 목판에 담은 전신도 판화 중 낮과 밤을 표현하는 일 월 성신 중에 월을 토끼 문양으로 표현한 작품과 중국 고대 한나라 때 만들어진 화상석과 화상전에도 토끼 관련 전설을 표현한 작품 등이 소개된다. 화상전에는 절구를 찧는 옥토끼 한 쌍이, 화상석에는 옥토끼와 달 두꺼비가 절구를 찧는 모습이 표현되어 눈여겨 볼만하다.

△일본 판화로는 불교의 12천 중에 월천을 표현한 목판화와 목판화를 아름답게 채색한 월천의 손 위에 달 속의 토끼를 들고 있는 작품과 손오공과 토끼가 그려진 우키요에 판화도 소개돼 한·중·일 삼국의 토끼 관련 자료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설날과 입춘에 많이 사용됐던 한·중·일 3국의 부적판화도 소개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정초에 목판화로 부적을 만들어 대문이나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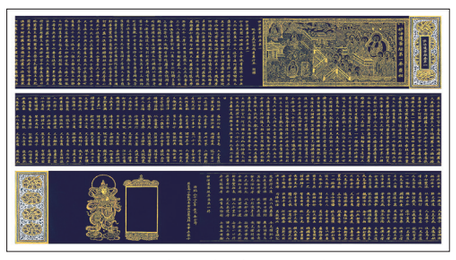
한국인이 가장 애용했던 부적판화는 삼재극복 부적으로, 주로 호랑이와 매를 결합해 그린 판화다. 종교부적으로는 불교의 아미타부처님이나 관음보살을 부적화하여 사용했으며 도교에서는 도교의 창시자인 장도릉을 의인화한 천사진택(부적)이 많이 사용됐다. 사업성취를 위한 칠성부 등을 비롯하여 장원급제를 위한 등룡부가 많이 사용됐다. 재난방지용으로 화재방지부와 도적침범부가 만들어졌으며, 소원성취용 종합부적인 '백살소멸만복부'가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진 중국세화는 다색 년화와 관음보살부적도 전시되며 일본의 종합부적도 소개된다.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은 '토끼 그리고 부적' 展을 시작으로 다양한 20주년 기념특별전을 통해 인쇄문화의 꽃인 고판화의 매력을 많은 대중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판화의 또 다른 매력을 많은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판화의 또 다른 매력인 디자인성을 부각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이 4차 산업시대의 중요한 콘텐츠인 고판화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선학 관장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자유로운 일상이 도래하는 계묘년에 지혜와 복덕의 상징인 토끼의 기운으로 힘껏 뛰는 한 해가 되어 온 세계가 우려하는 경제 한파를 이겨내는 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많은 대중이 관람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 기간 전시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끼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와 다양한 전통판화 교육도 진행된다. 박물관은 또 새해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토끼와 부적 판화 인출체험도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자 금니사경 묘법연화경 최대 규모 인정


최대 규모 금니사경(金泥寫經) 묘법연화경

1월 11일 인증서 수여식에서
한국기록원 공식 인정서 전달

폭 33cm 총 길이 800m 금니
묘법연화경 20년 걸쳐 완성해

사경가 이순자의 사경작품 '금니사경 묘법연화경'이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최대 규모를 인정받았다. 이 작가는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진행한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이 작가는 2002년 5월 1일부터 약 20년 동안 폭 33cm 총 길이 800m 이상의 고려장지 위에 순금으로 〈묘법연화경〉을 사경했다. 이 작품은 1세트에 7권, 총 8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글자 수만도 56만 자에 달하는 역작이다. 특히 이 작품은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30년 전에 재현한 고려감지로 작업한 작품으로, 〈묘법연화경〉을 금니로 쓰고 그려서 대중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고 경전의 가르침들이 지친 대중을 위로하기 위한 불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기록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최고 기록을 인증하고 미국 World Record Committee (WRC/세계기록위원회) 등 해외 기록 인증 업체에 도전자를 대신해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최고 기록 인증 전문 기관으로, 이순자 작가의 '금니사경 묘법연화경'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인증식에서 '금니사경 묘법연화경'을 전시함으로써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불교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이순자 작가는 "정성을 다해 제작된 사경 작품이 많은 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어 일상에서 평온을 찾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으며, KRI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기록 인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1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오후 6~9시) 때
'불교조각실·조제불상…' 등 다양 구성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용성)은 2023년 한 해도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상설전시관 2층 기증 I 실 '나눔의 가치를 발견하다'에서는 기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선사고대관 신라실의 '신라와 황금 이야기'에서는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관 등 금속공예품을 자세히 살펴보고, 백제실의 '사비 백제의 건축 장식'에서는 치미 등 백제의 건축 장식과 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중근세관 고려 I 실의 '삼국사기, 고려 사회의 삼국 역사 인식'에서는 당시 고려 지배계층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II실의 '조선의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에서부터 대동여지도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지도 전통을 이해하는 시간이다.

△조각공예관 청자실의 '상형청자'에서는 비색 청자 중 연꽃을 표현한 국보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와 '청자 사자모양 향로'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불교조각실의 '도제불상-흙으로 구워 낸 부처님'에서는 도제 불상의 제작 기법을 소개한다.

△특별전시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에서는 의궤 하나하나를 흥미롭게 소개한다.

△그 밖에도 중국실의 '중국 청동 예기', 서화실의 '전통장황과 현대장황', '어린이박물관 미륵사지 교육상자 소개' 등 박물관 곳곳에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박재완 기자

